

성적지향 마이크로어그레션이 성소수자(LGB)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 반추의 매개효과에 대한 사회적 지지와 성정체성 수용의 조절효과*

이 현 정¹⁾ 유 금 란[†]

본 연구는 성적지향 마이크로어그레션과 우울의 관계에서 반추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고, 사회적 지지와 성정체성 수용이 매개효과를 조절하는지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만 18세 이상 시스젠더 동성애자와 양성애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최종적으로 380명이 연구대상으로 선정되었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반추와 성정체성 수용의 관계에서 유의한 상관성이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를 제외한 모든 변인의 상관성이 유의하였다. 둘째, 성적지향 마이크로어그레션과 우울의 관계를 반추가 매개하는지 분석한 결과, 부분매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사회적 지지와 성정체성 수용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두 변인 모두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사회적 지지의 효과크기가 성정체성 수용의 효과크기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연구의 함의점과 상담 장면에서의 개입가능성, 후속 연구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주요어 : 성적지향 마이크로어그레션, 반추, 우울, 사회적 지지, 성정체성 수용

* 본 연구는 이현정의 2021년도 석사학위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임.

1) 가톨릭대학교 심리학과, 석사 졸업

† 교신저자 : 유금란, 가톨릭대학교 심리학과,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지봉로 43

Tel: 02-2164-4271, E-mail: kyu@catholic.ac.kr

 Copyright ©2024, The Korean Psychological Association of Culture and Social Issues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최근 한국에서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과 동성혼 법제화를 위한 시민사회의 움직임이 대두되고 있다. 2023년 2월 21일, 서울고등법원은 동성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 자격을 인정하는 고무적인 판결을 내리기도 하였다(정혜민, 2023). 재판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성관계인 사실혼 배우자 집단에 대해서만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고 동성관계인 집단에 대해서는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성적지향을 이유로 하는 차별대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사회보장제도를 포함한 공법적 영역에서 성적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다’고 판시했다.

오늘날 성소수자의 권리에 대한 논의는 사회 곳곳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정신건강 분야에서도 유의미한 변화가 있어 왔다. 1973년, 미국정신의학회(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APA)는 정신장애 진단 및 통계편람(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DSM)에서 공식적으로 동성애를 삭제하기로 결정했다. 1990년,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는 국제질병분류(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s) 제 10판에서 동성애를 삭제하였다. 이처럼 과거에 비해 성소수자에 대한 명백하고 노골적인 차별은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지만(Nadal, 2013) 현대에 들어 차별의 양상은 보다 복잡하고 미묘한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다.

그 예로 2021년 3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토론회 중 ‘서울 도심에서 퀴어 축제를 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발언이 화두에 올랐다(곽재훈, 2021). ‘퀴어 축제를 보지 않을 권리’에 대한 언급과 함께 ‘소수자 차별에 절대로 반대한다’고 주장하며 모호한 입장을 밝혔다. 이어서 2023년 5월 3일, 서울시는 서울퀴어문

화축제 조직위원회의 서울광장 사용 신청을 불허했다(정규리, 2023). 이렇듯 한국 사회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성소수자 3,911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2021 청년 성소수자 사회적 욕구 및 실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중 33.6%가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차별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보고하였다(정성조 외, 2022). 공공기관이나 의료기관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발언을 접했다고 답한 응답자는 전체 응답자 중 55.7%로 밝혀졌다. 이는 성소수자가 비가시적이고 간접적인 형태의 차별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성소수자들은 우울, 불안과 같은 심리적 고통을 겪을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자살위험성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김은경, 권정혜, 2004; 허정은, 박경, 2004). 성소수자의 41.5%는 지난 1년간 자살을 생각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8.2%는 실제로 자살을 시도했다고 보고하였다(정성조 외, 2022). 국내 청년들에게 한번이라도 자살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한 적이 있는지 질문한 조사연구에서 2.74%만이 ‘그렇다’고 응답한 것에 비추어 보면, 성소수자의 자살사고는 일반 집단에 비해 15배 가까이 높은 수준인 것으로 파악된다(정세정 외, 2020). 또한 혐오표현 실태조사 및 규제방안 연구 결과, 성소수자들은 자신의 성적지향을 이유로 비난을 받거나 범죄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두려움을 느끼며 우울감과 정신적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홍성수 외, 2016).

Pierce (1970)는 차별이라고 명확히 규정하기에는 모호하지만 그럼에도 소수 집단에게 위협이 되는 행위에 주목했다. ‘아주 작은 울 뜻

하는 'micro'와 '공격'을 뜻하는 'aggression'을 조합해 '마이크로어그레션'이라는 단어를 만들었으며 미묘한 방식의 현대적 차별주의라고 정의했다(박도담, 유성경, 2019). 성적지향 마이크로어그레션은 이성애중심주의에 기반한 차별로, 노골적인 혐오 발언이나 행위와 달리 비차별적 의도로 포장되기 쉽고 은밀한 특성을 지닌다. 때문에 심리적 혼란감, 불편감이 초래될 가능성이 높고 당사자가 적절한 대처를 하기 어렵다(Shelton & Delgado-Romero, 2013). 또한 일회적이고 무해해 보일 수 있으나 오랜 기간 누적되면 성소수자 개인과 집단의 삶의 질, 생활수준, 정신건강에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Nadal, 2013; Sue, 2010a).

초기 마이크로어그레션에 대한 연구는 인종과 젠더에 초점을 두었다. 그러나 차별은 연령, 장애, 종교, 사회계층과 같은 다양한 사회적 맥락에서 발생하므로, 인종과 젠더 외의 여러 영역에서도 마이크로어그레션 개념을 활용할 수 있다(Sue, 2010b). Sue, Capodilupo 외(2007)는 성소수자 또한 성적지향과 관련된 일상적이고 감지되기 어려운 차별을 경험한다고 보았다. Sue (2010a)는 성소수자가 경험하는 성적지향 마이크로어그레션을 8가지 하위유형으로 구분하였다.

첫째, 이성애중심/ 트랜스혐오적 용어의 사용(use of heterosexist or transphobic terminology)은 성소수자를 비하해서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이성애중심/ 성별규준적 문화/ 행동 지지(endorsement of heteronormative or gender normative culture/ behaviors)는 이성애중심 문화의 가치, 신념에 맞추도록 압력을 가하는 것이다(Sue, Capodilupo et al., 2007). 이는 인간은 자연적으로 이성애자로 태어나며 이성애중심

적인 삶의 방식이 표준이라는 가정을 전제로 한다(Herek et al., 1998). 셋째, 성소수자 경험의 보편화(assumption of universal LGB experience)는 주변화된 집단의 개개인이 집단 전체를 대표하는 것처럼 취급하는 형태의 차별이다(McIntosh, 2003). 이는 개인의 고유성과 정체성 발달을 고려하지 않는 사고방식에 기인한다. 넷째, 소외화(exoticization)는 아시안이나 라틴계열 인종의 사람들을 '이국적(exotic)'이라고 표현하는 인종적 마이크로어그레션의 예와 관련이 있다(Sue et al., 2007). 성소수자가 동성애 또는 양성애 성적지향을 밝혔을 때 성적 욕망을 주체할 수 없는 존재로 여기고 자신을 좋아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 예이다. 다섯째, 성소수자에 대한 불편감/ 비승인(discomfort with or disapproval of LGB)은 이성애중심적 편견을 미묘한 방식으로 전달하는 것이다. 동성커플을 지나치게 자주 쳐다보는 것과 같은 간접적인 행동이 이에 해당한다. 여섯째, 사회적 이성애중심주의/ 트랜스혐오적 부정(denial of societal heterosexism/ transphobia)은 현대의 동성애부정적(homonegative) 태도와 관련이 있다. 현대 사회에는 모든 차별이 사라졌다고 주장하면서 성소수자들은 불만이 너무 많다고 비난하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Morrison & Morrison, 2003). 일곱째, 성적 병리/ 비정상적으로 가정(assumption of sexual pathology/ abnormality)은 비이성애 성적지향을 성도착이나 병리적 증상으로 보는 것이다. 상담자가 성소수자 내담자에게 전환치료(conversion therapy)를 권유하는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개인적 이성애중심주의/ 트랜스혐오적 부정(denial of individual heterosexism/ transphobia)은 이성애중심주의자들이 자신은 차별주의자가 아니라고 발화함으로써 성소수

자의 실제 경험을 무력하게 만드는 것이다.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더라도 자신이 이성애중심적인 편견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이는 성소수자에 대한 공격이 될 수 있다(Conley et al., 2002). 성적지향 마이크로어그레션의 핵심은 개인의 의도와 인품에 상관없이 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소수자를 비롯한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성애중심적인 사회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기존의 암묵적인 규범과 고정관념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은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필연적이며 이는 상담관계에서 또한 유의하다(손현진, 정남운, 2023).

그러나 지금까지 성소수자와 이성애자의 정신건강 불평등에 관한 선행연구는 사회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진 것이 많아(Meyer, 2003) 실제 상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개입방안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한계점이 존재한다(Kalevet et al., 2006). 이에 Hatzenbuehler (2009)는 사회적인 차원에서의 소수자 집단 스트레스 과정과 개인적 차원에서의 심리 내적 과정을 모두 반영하는 심리학적 매개 모형(Psychological Mediation Framework)을 고안해 Meyer (2003)의 소수자 스트레스 이론(Minority-Stress Model)을 확장하였다. 심리학적 매개 모형은 환경적 요인과 반응적 요인 둘 다 정신건강에 영향을 끼친다는 스트레스의 교차적 정의에 근거하며(Monore, 2008) 차별 경험이 정신건강 문제로 이어지는 과정을 일반적 심리 과정(General Psychological Processes)과 집단 특정적 과정(Group-Specific Processes) 두 가지 경로를 통해 설명한다. 집단 특정적 심리 과정은 소수자 집단에 속해있다는 이유로 겪게 되는 거절에 대한 예상, 정체성 은폐(concealment), 내면화된 낙인을 강조하며, 이는 Meyer의 소수자 스트레

스 이론에서 중점을 두는 요인이다. 한편, 일반적 심리 과정은 인간 개개인이 보편적으로 경험하는 정서조절/ 대처 곤란, 사회적/대인관계적 어려움, 인지적 문제에 주목한다. Hatzenbuehler는 외부 사건에 반응하는 개인의 내적 과정을 조명함으로써, 억압받는 공동체에 속해있는 동시에 한 개인으로 살아가는 소수자의 심리상태를 총체적으로 이해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Hatzenbuehler의 심리학적 매개 모형의 두 가지 경로 중 일반적 심리 과정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현재 한국에서 진행된 선행연구들은 Meyer의 소수자 스트레스 이론에 근거한 것이 대부분이며(박의주, 2012; 이성원, 연구진, 2020; 황단비, 2020) 매개변인 또한 내면화된 이성애주의, 거부민감성, 내면화된 동성애혐오와 같이 집단 특정적 과정에 초점을 맞춘 경우가 많다(김수연, 2020; 박희정, 2023; 손현진, 정남운, 2023). 그에 비해 해외에서는 정서조절 곤란, 대처기술 부족, 낮은 자아존중감 등 개인 내면의 심리적 요인에 초점을 맞춘 연구들이 이미 진행된 바 있다(Hatzenbuehler et al., 2008; Matthews et al., 2002; Plöderl & Fartacek, 2005; Wichstrom & Hegna, 2003). 더불어 성소수자 중 37.6%가 최근 1년간 정신과를 방문하였고 30.8%는 약물 치료 경험이 있다는 조사결과에 빚대어 볼 때(정성조 외, 2022), 정신적 스트레스가 발생하는 개인적, 내적 과정을 탐색하고 상담적 개입의 근거로 활용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이에 본 연구는 차별인지 아닌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마이크로어그레션의 특성에 착안하여 차별경험과 반추, 우울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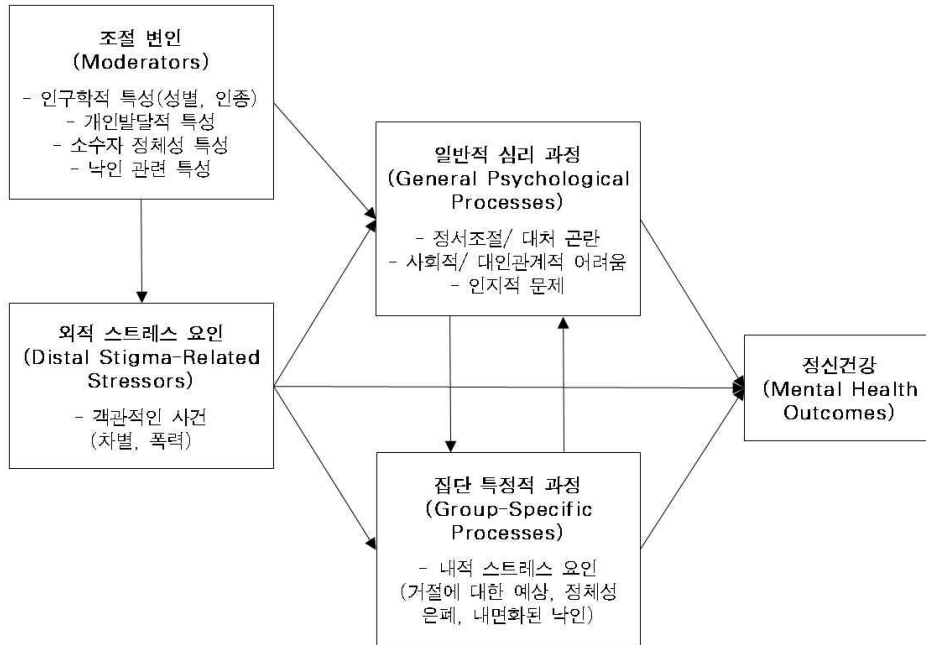


그림 1. Hatzenbuehler (2009)의 심리학적 매개 모형

반추는 스트레스 요인과 상황에 반복적으로 집중하는 부적응적 정서조절 전략으로 (Nolen-Hoeksema, 1991) 많은 연구결과가 반추가 소수자 스트레스와 정신건강 문제를 매개하는 요인임을 뒷받침하고 있다(Sarno et al., 2020; Timmins et al., 2020). 또한 반추는 우울 증상과 정적 상관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정한나 외, 2017; Abela et al., 2007; Huffziger et al., 2009; Sarin et al., 2005). 최유주 (2024)는 성적지향 마이크로어그레션이 반추를 거쳐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탐색하였으며, 그 외 연구에서도 미묘한 성차별 경험이 분노반추와 우울을 매개한다는 결과가 확인된 바 있다(박사로, 2024; 이유진, 2021). 이는 반추가 개인이 자신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평가하지 못하도록 방해하여 정서조절을 저해하고, 문제 상황을 내부 귀인할 가능성을 높이기 때문

인 것으로 파악된다(Lyubomirsky et al., 1999).

앞서 제시된 마이크로어그레션의 예에서 드러나듯이 성소수자가 경험하는 스트레스는 만성적이며 특수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스트레스 대처 전략에 추가적인 자원이 필요하다(Meyer, 2003). Meyer (2003)에 따르면, 사회적 지지는 소수자 스트레스의 주요한 완충요인이다. 사회적 지지가 차별 경험이 정신건강 문제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한다는 것은 실증적으로도 확인된 바 있다(Gonzalez et al., 2021; Lee et al., 2023). 국내에서는 장미래와 송현주 (2021)가 여성 성소수자의 성적지향 드러내기와 심리사회적 적응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가 조절효과를 가진다는 것을 검증하였으며, 박의주 (2012)는 사회적 지지가 남성 성소수자의 불안을 조절함을 밝혔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일반적인 형

태의 사회적 지지와 성적지향에 대한 사회적 지지의 효과는 다르게 나타난다(이호림, 2015). 성소수자 정체성의 비가시적 특징이 대처자원인 사회적 지지의 작동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성적체성은 성별이나 연령 등 다른 표지와는 달리 자신이 성소수자임을 밝히지 않으면 타인에게 인지되기 어렵다. 따라서 정체성의 비가시성, 커밍아웃 여부는 차별의 표지로 기능하는 동시에 성적지향에 대한 사회적 지지를 가능하게 하기도 한다(이우람, 2020). 이는 소수자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자원인 사회적 지지가 성적체성의 특수한 맥락 안에서 파악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며, 각 변인을 단일한 차원에서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기존의 연구 중 일반적인 사회적 지지와 성적지향을 고려한 사회적 지지가 각각 얼마나 큰 조절효과를 지니는지, 무엇이 더 유의한지 비교하는 연구는 없다. 이를 비교하고 밝히는 것은 타인의 지지가 성소수자의 정신건강에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 모두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이호림 (2015)의 연구에 따르면, 소수자 스트레스와 우울, 불안의 관계에서 일반적인 사회적 지지는 조절효과를 보이지 않았으나 성적지향을 고려한 사회적 지지는 유의한 조절효과를 보였다. 같은 맥락에서 Ramirez-valles 외 (2005)는 성적지향 특정한 사회적 지지를 경험할 때 성적체성과 관련된 스트레스로부터 성소수자의 정신건강이 보호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강조했다. 그 예로, 가족이나 친구와 같은 친밀한 타인이 성소수자 개인의 정체성을 모르는 상황은 다양한 정신건강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이때 사회적 지지가 성소수자의 정체성에 대한 인지에 기반하지 않고 일반적 형태에

그치는 경우, 이는 당사자에게 의미 있는 지지가 아닐 수 있다(Bergart, 2004; Dory et al., 2010). 오히려 가족의 일반적인 사회적 지지 수준이 높은 상황에서, 성소수자는 지지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자신의 정체성을 감추며 심리적 에너지를 소모한다는 사실이 밝혀지기도 하였다(강병철, 하경희, 2007; Remafedi et al., 1991; Ryan & Futterman, 1997).

종합하면, 성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지지의 효과는 사회문화적 배경과 주변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을 고려해 탐색되어야 하며, 일반적인 사회적 지지와 성적체성 수용을 구분해 기존 연구(박의주, 2012; 장미래, 송현주, 2021)의 한계점을 보완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지와 성적체성의 수용 두 가지 변인의 조절효과를 개별적으로 확인하고 각각의 효과크기를 살펴보고자 한다.

더불어 성소수자 공동체의식과 같은 동질 집단을 출처로 한 자원에 관한 연구는 풍부한 것에 비해(김수연, 2020; 윤수진, 2019; 이성원, 연구진, 2020; 황단비, 2020) 정체성을 공유하지 않는 포괄적인 집단의 지지에 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비성소수자를 포함한 집단으로부터 경험하는 사회적 지지와 성적체성 수용이 성소수자의 반추와 우울 경험에 보호요인으로 작용하는 과정을 탐구할 필요가 있다.

위의 연구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성소수자 경험하는 차별, 즉 성적지향 마이크로어그레션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하고, 차별 경험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반추와 사회적 지지, 성적체성 수용 중 무엇이 더 큰 조절효과를 지니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그림 2, 3과 같이 두 가지 연구모형을 통해 일반적인 사회적 지지와 성적체성 수용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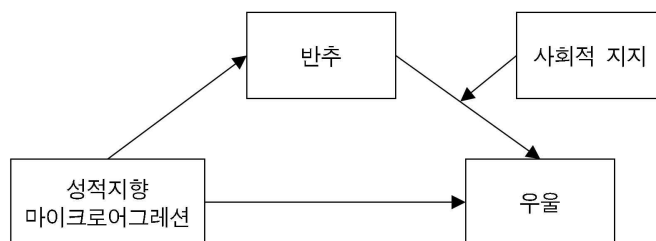


그림 2. 연구모형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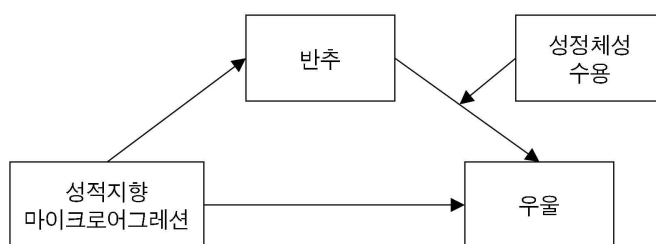


그림 2. 연구모형 2

효과를 개별적으로 확인하고, 각 요인의 효과 크기를 비교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주요 목적은 성소수자에게 사회적 지지가 지니는 의미가 무엇인지, 지지를 제공하는 타인이 성소수자의 성적체성을 수용한 경우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확인함으로써 성소수자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상담적 개입의 근거로 활용하는 것이다.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성적지향 마이크로어그레션과 우울의 관계를 반추가 매개하는가? 둘째, 성적지향 마이크로어그레션이 반추를 거쳐 우울에 이르는 경로에서 사회적 지지의 조절된 매개효과는 어떠한가? 셋째, 성적지향 마이크로어그레션이 반추를 거쳐 우울에 이르는 경로에서 성적체성 수용의 조절된 매개효과는 어떠한가?

방 법

연구 대상 및 절차

본 연구는 자신을 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로 정체화 하는 만 18세 이상의 성인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연구자 소속 생명윤리심의 위원회의 승인 하에 진행되었다. 공적이거나 사회적인 장면에서 자신의 성적체성을 드러내는 것은 성소수자에게 위협으로 경험될 수 있으므로 온라인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설문은 대상자들이 활동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브리타임 게시판, 트위터, 인스타그램을 포함한 각종 소셜 미디어)에 약 2주간 배포되었다. 그 결과 총 443명의 연구 참여자가 모집되었으며, 이 중 연구 대상자에 해당하며 모든 문항에 성실하게 응답한 380명의 설문 결과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연구 대상자의 연령은 10대 84명(22.1%), 20대 262명(68.9%), 30대 30명(7.9%), 40대 2명(0.3%), 50대 2명(0.3%)으로, 타 연령대에 비해

20대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태어났을 때의 생물학적 성별은 여성이 269명(70.8%), 남성이 111명(29.2%)으로 남성에 비해 여성이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자신이 인식하는 성별 정체성 또한 수집했으나 본 연구는 시스젠더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생물학적 성별과 성별 정체성이 일치하는 경우만을 포함하였다. 따라서 성별 정체성 정보는 생물학적 성별에 관한 정보와 같다. 성적지향은 양성애자 223명(58.7%), 동성애자 157명(41.3%)으로 확인되었다. 자신의 성적지향을 스스로 인지하고 수용하게 된 시기는 11세 이전이 24명(6.4%), 12-14세가 97명(25.5%), 15-17세가 141명(37.2%), 18-22세가 99명(26.0%), 23세 이후가 19명(5.1%)으로 나타났다. 많은 경우 고등학교 과정을 포함한 시기인 15-17세에 자신의 성적지향을 인식하고 수용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자신의 성적지향을 드러낸 경험이 없는 53명(13.9%)을 제외하고 150명(39.5%)이 5회 이상 성적지향을 드러낸 경험이 있다고 답했으며, 10회 미만이 68명(17.9%), 10회 이상이 109명(28.7%)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적지향을 드러낸 대상으로는 아버지가 48명, 어머니가 78명, 형제 또는 자매가 113명, 이성애자 친구가 297명, 성소수자 친구가 265명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외에 친인척, 선생님, 성직자, 같은 수업을 듣는 학생들에게 성적지향을 드러낸 경험이 보고되었다.

측정 도구

성적지향 마이크로어그레션

성적지향에 기반한 마이크로어그레션을 측정하기 위해 Woodford 외 (2015)이 개발한 대학 내 마이크로어그레션 척도(LGBQ Microaggression on Campus Scale: LGBQ-MCS)를 박도담과 유

성경 (2019)이 번안하고 개정한 한국판 성적지향 마이크로어그레션(Korean Version of Sexual Orientation Micro-aggressions Scale: K-SOMS) 척도를 사용했다. '개인적 마이크로어그레션', '환경적 마이크로어그레션', '일반적 마이크로어그레션' 3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6점 Likert 척도를 사용하고 총 24문항이다. 본 연구에서 전체 신뢰도(Cronbach's α)는 .90으로 확인되었으며 손현진과 정남운 (2023)의 연구에서는 .90으로 나타났다. '개인적 마이크로어그레션'의 예시 문항으로 '내 성적지향은 과거에 잘못된 일 때문이라는 말을 직접적으로 또는 넌지시 들은 적이 있다'가 있으며, '환경적 마이크로어그레션'의 예시 문항으로는 '이성애자의 성관계에 국한된 성 건강 관련 정보를 받은 적이 있다'가 있다. '일반적 마이크로어그레션'의 예시 문항으로는 '동성애와 관련된 이야기를 듣는 것이 지겹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가 있다.

반추

반추적 반응을 측정하기 위해 Nolen-Hoeksema (1991)가 개발한 반응양식 척도(Response Style Questionnaire: RSQ)를 김은정과 오경자 (1994)가 번안한 척도를 사용했다.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할 때 반추를 하는 경향성이 더 큰 것을 의미하며, 4점 Likert 척도를 사용하고 총 2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91로 확인되었으며 김은미 (2016)의 연구에서는 .93으로 나타났다. 예시 문항으로 '혼자 어딘가에 가서 내 감정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보는'가 있다.

우울

우울감을 측정하기 위해 Radloff (1977)가 개

발한 역학연구 우울 척도(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 Depression Scale: CES-D)를 이산 외 (2016)이 표준화한 척도를 사용했다. '요인 1 (우울한 기분, 흥미 또는 즐거움 상실, 피로 또는 활력 상실, 자해 또는 자살사고, 죄책감, 집중 어려움, 불면증, 정신운동 초조), 요인 2 (체중감소, 식욕저하, 과수면, 정신운동 지연)' 2가지 하위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점 Likert 척도를 사용하고 총 20문항이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92로 확인되었으며 나윤재와 유성경 (2020)의 연구에서는 .96으로 나타났다. 예시 문항으로 '울직한 기분을 떨쳐 버릴 수 없었다'가 있다.

사회적 지지

사회적 지지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박지원 (1985)이 개발한 '간접적으로 지각한 지지 척도'를 김인숙 (1994)이 재구성한 척도를 사용했다. '정서적 지지', '정보적 지지', '도구적 지지' 3가지 하위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점 Likert 척도를 사용하고 총 16문항이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97로 확인되었으며 강병철 (2011)의 연구에서는 .96으로 나타났다. '정서적 지지'의 예시 문항으로 '내가 사랑과 돌봄을 받고 있다고 느끼게 해준다'가 있으며, '정보적 지지'의 예시 문항으로는 '내게 생긴 문제의 원인을 찾아내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해준다'가 있다. '도구적 지지'의 예시 문항으로는 '내가 몸져 누워있다면 일을 대신 해줄 것이다'가 있다.

성정체성 수용

성정체성을 수용 받았다고 느끼거나, 수용 받을 것이라고 예상되는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Weinberg와 Williams (1974)가 개발한 성정

체성 수용 척도를 이호림 (2015)이 번역한 척도를 사용했다. '부모(양육자 또는 보호자)', '형제자매', '이성애자 친구(비성소수자 친구)', '성소수자 친구'로 커밍아웃의 대상을 구분해 각 대상에게 커밍아웃 했을 때 자신의 성정체성을 어느 정도 수용했거나, 수용할 것으로 예상되는지를 측정한다. 9점 Likert 척도를 사용하며 총 8문항이다. Cronbach's α 는 본 연구에서 .71로 확인되었으며 이호림 (2015)의 연구에서는 .98로 나타났다. '다음은 여러분이 성소수자라는 것을 가족이나 친구들이 알고 난 후 보인 반응에 대한 문항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성소수자라는 사실을 아무도 모르는 경우 예상되는 반응을 적어 주시면 됩니다.'와 같은 내용이 제시된다.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22.0과 SPSS Process Macro 3.5를 활용하여 다름과 같이 분석하였다. SPSS 22.0으로 연구 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파악하였으며, 주요 변인들의 상관관계와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를 포함한 기술통계치를 산출하였다. 또한 성적지향 마이크로어그레션과 우울의 관계에서 반추가 지니는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Hayes (2012)의 PROCESS Macro Model 4를 통해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을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조절된 매개효과 검증을 위해 조건부 간접효과를 검증하였다. Hayes (2015)는 조절된 매개지수(index of moderated mediation)가 유의미하다는 것은 간접효과가 조절 변인의 수준에 따라 유의하게 다르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았다. 조건부 간접효과와 조절된 매개지수는 부트스트래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Preacher

et al., 2007). 이를 검증하기 위해 SPSS Process Macro Model 14을 사용하여 조절된 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

결 과

상관관계 및 기술통계

자료의 일반적 경향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 주요 변인들의 상관관계와 기술통계를 분석한 결과를 표 1에 제시하였다. 우선 모든 변인들의 왜도와 첨도가 각각 절댓값이 2와 7보다 작아 정상성 가정을 만족함을 확인하였다(West et al., 1995).

성적지향 마이크로어그레션은 반추, 우울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사회적 지지, 성정체성 수용과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반추는 사회적 지지와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으나, 성정체성 수용과는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사회적 지지와 성정체성 수용은 유의한 정적 상관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개효과 검증

성적지향 마이크로어그레션과 우울의 관계

에서 반추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분석한 결과를 표 2에 제시하였다. 성적지향 마이크로어그레션은 반추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beta=.295, p<.001$), 반추는 우울에 유의한 영향을 주어($\beta=.672, p<.001$) 반추가 성적지향 마이크로어그레션과 우울 간의 관계를 매개하였다. 또한 성적지향 마이크로어그레션에서 우울 간의 총효과는 $\beta=.300(p<.001)$ 이었으나 매개변수인 반추가 투입되면서 성적지향 마이크로어그레션에서 우울 간 경로의 직접효과가 $\beta=.102(p<.01)$ 로 감소하여 반추가 매개하였음을 알 수 있다. 성적지향 마이크로어그레션이 반추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반추는 우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점, 성적지향 마이크로어그레션과 우울 간 경로의 총효과가 직접효과에 비해 큰 점은 매개효과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반추가 성소수자가 경험하는 성적지향 마이크로어그레션과 우울을 매개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성적지향 마이크로어그레션과 우울의 간접효과를 부트스트래핑을 활용하여 검증한 결과 표 3과 같이 부트스트랩의 상한값과 하한값 간에 0이 존재하지 않아 간접효과가 있다는 것이 검증되었다.

표 1. 주요 변인들의 상관관계 및 기술통계

	1	2	3	4	5	M	SD	왜도	첨도
1. 성적지향 마이크로어그레션	-					3.12	.95	.08	-.50
2. 반추	.295**	-				2.68	.73	-.28	-.73
3. 우울	.300**	.702**	-			2.19	.92	.65	-.50
4. 사회적 지지	-.139**	-.275**	-.362**	-		3.90	.73	-.73	-.74
5. 성정체성 수용	-.189**	-.093	-.158**	.337**	-	7.79	1.13	.16	-.06

주. ** $p<.01$

이현정 · 유금란 / 성적지향 마이크로어그레션이 성소수자(LGB)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 반추의 매개효과에 대한 사회적 지지와 정체체성 수용의 조절효과

표 2. 성적지향 마이크로어그레션과 우울의 관계에서 반추의 매개효과

	β	SE	t	95% 신뢰구간	
				LLCI	ULCI
종속변인: 반추					
상수	.000	.049	.000	-.097	.097
마이크로어그레션	.295	.049	5.997***	.198	.391
종속변인: 우울					
상수	-.000	.036	-.000	-.1071	.071
마이크로어그레션	.102	.038	2.688**	.028	.177
반추	.672	.038	17.660***	.597	.746

주. ** $p < .01$, *** $p < .001$

표 3. 반추의 매개효과 유의성 검증

효과	β	SE	LLCI	ULCI
총효과	.300	.049	.204	.397
직접효과	.102	.038	.028	.177
간접효과	-.198	.034	.129	.265

조절된 매개효과 검증

반추를 매개로 성적지향 마이크로어그레션

이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사회적 지지가 조절된 매개효과를 나타내는지 검증하기 위하여 분석한 결과를 표 4에 제시하였

표 4. 사회적 지지의 조절된 매개효과

	β	SE	t	95% 신뢰구간	
				LLCI	ULCI
종속변인: 우울					
상수	-.032	.036	-.884	-.103	.039
마이크로어그레션	.088	.037	2.419*	.017	.160
반추(A)	.660	.039	16.967***	.584	.737
사회적 지지(B)	-.187	.053	-3.556***	-.290	-.084
A×B	-.160	.047	-3.404***	-.252	-.068

주. * $p < .05$, *** $p < .001$

다. 성적지향 마이크로어그레션이 반추($\beta=.295$, $p<.001$)와 우울($\beta=.088$, $p<.05$)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반추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 또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beta=.660$, $p<.001$). 반추와 사회적 지지의 상호

작용 효과는 우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조절된 매개효과의 영향이 확인되었다($\beta=-.160$, $p<.001$). 사회적 지지의 조절된 매개지수는 95% 신뢰구간에 0이 속하지 않아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유의성 검증

사회적 지지 수준	β	SE	LLCI	ULCI
-1SD(-.727)	.229	.042	.148	.313
M	.195	.035	.127	.263
+1SD(+.727)	.160	.030	.102	.220
Index of Moderated Mediation				
	-.047	.015	-.081	-.020

표 6.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유의성 영역

사회적 지지	β	SE	t	p	LLCI	ULCI
-2.9099	1.1252	0.1513	7.4369	0	0.8277	1.4227
-2.7099	1.0932	0.1422	7.6867	0	0.8136	1.3729
-2.5099	1.0613	0.1332	7.9681	0	0.7994	1.3232
-2.3099	1.0293	0.1242	8.2867	0	0.7851	1.2735
-2.1099	0.9973	0.1153	8.6502	0	0.7706	1.224
-1.9099	0.9654	0.1065	9.0676	0	0.756	1.1747
-1.7099	0.9334	0.0977	9.5503	0	0.7412	1.1256
-1.5099	0.9014	0.0891	10.1124	0	0.7261	1.0767
-1.3099	0.8695	0.0807	10.7707	0	0.7107	1.0282
-1.1099	0.8375	0.0725	11.544	0	0.6948	0.9801
-0.9099	0.8055	0.0647	12.4498	0	0.6783	0.9327
-0.7099	0.7735	0.0573	13.495	0	0.6608	0.8863
-0.5099	0.7416	0.0506	14.6521	0	0.6421	0.8411
-0.3099	0.7096	0.0449	15.8127	0	0.6214	0.7978
-0.1099	0.6776	0.0405	16.7204	0	0.5979	0.7573
0.0901	0.6457	0.038	16.9707	0	0.5709	0.7205
0.2901	0.6137	0.0378	16.235	0	0.5394	0.688
0.4901	0.5817	0.0398	14.6041	0	0.5034	0.66
0.6901	0.5498	0.0438	12.5437	0	0.4636	0.6359
0.8901	0.5178	0.0493	10.5008	0	0.4208	0.6147
1.0901	0.4858	0.0558	8.6998	0	0.376	0.5956

(Index=-.047, SE=.051, 95% CI=[-.081, -.020]).

또한 사회적 지지의 조건부 효과를 탐색하기 위해 Johnson-Neyman 기법을 사용하였다.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가 유의한 구간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표 6에 제시하였다. 성적지향 마이크로어그레션이 반추를 거쳐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사회적 지지의 완충효과는 1.0901부터 -2.9099까지의 모든 영역에서 유의하였다. 이는 사회적 지지를 많이 경험할수록 반추에 따른 우울의 증가가 모든 영역에서 감소함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반추를 매개로 성적지향 마이크로어그레션이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성정체성의 수용이 조절된 매개효과를 나타내

는지 검증하기 위하여 분석한 결과를 표 7에 제시하였다. 반추와 성정체성 수용의 상호작용 효과는 우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조절된 매개효과의 영향이 확인되었다($\beta=-.059, p<.05$). 성정체성 수용의 조절된 매개지수는 95% 신뢰구간에서 0이 속하지 않아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Index=-.018, SE=.031, 95% CI=[-.036, -.003]).

Johnson-Neyman 기법을 통해 성정체성 수용의 조절효과가 유의한 구간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표 9에 제시하였다. 성적지향 마이크로어그레션이 반추를 거쳐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성정체성 수용의 완충효과는 3.2099부터 -2.9151까지의 모든 영역에서 유의하였

표 7. 성정체성 수용의 조절된 매개효과

	β	SE	<i>t</i>	95% 신뢰구간	
				LLCI	ULCI
종속변인: 우울					
상수	-.006	.036	-.173	-.077	.065
마이크로어그레션	.086	.037	2.255*	.011	.162
반추(A)	.678	.038	17.824***	.603	.753
성정체성 수용(B)	-.075	.033	-2.288*	-.139	-.011
A×B	-.059	.030	-1.996*	-.118	-.001

주. * $p<.05$, *** $p<.001$

표 8. 성정체성 수용의 조절효과 유의성 검증

성정체성 수용 수준	β	SE	LLCI	ULCI
-1SD(-1.130)	.220	.041	.140	.304
M	.120	.035	.130	.271
+1SD(+1.130)	.180	.031	.119	.242
Index of Moderated Mediation				
	-.018	.008	-.036	-.003

표 9. 성정체성 수용의 조절효과 유의성 영역

성정체성 수용	β	SE	t	p	LLCI	ULCI
-2.9151	0.8509	0.0989	8.604	0	0.6564	1.0453
-2.6089	0.8327	0.0905	9.1963	0	0.6547	1.0107
-2.3026	0.8145	0.0824	9.8896	0	0.6526	0.9765
-1.9964	0.7964	0.0744	10.7051	0	0.6501	0.9427
-1.6901	0.7782	0.0667	11.6656	0	0.647	0.9094
-1.3839	0.7601	0.0594	12.7891	0	0.6432	0.8769
-1.0776	0.7419	0.0527	14.0729	0	0.6382	0.8455
-0.7714	0.7237	0.0468	15.4581	0	0.6317	0.8158
-0.4651	0.7056	0.0421	16.7686	0	0.6228	0.7883
-0.1589	0.6874	0.0389	17.6638	0	0.6109	0.7639
0.1474	0.6692	0.0377	17.7344	0	0.595	0.7434
0.4536	0.6511	0.0387	16.8148	0	0.5749	0.7272
0.7599	0.6329	0.0417	15.1726	0	0.5509	0.7149
1.0661	0.6148	0.0463	13.269	0	0.5237	0.7059
1.3724	0.5966	0.0521	11.4424	0	0.4941	0.6991
1.6786	0.5784	0.0588	9.8393	0	0.4628	0.694
1.9849	0.5603	0.066	8.4858	0	0.4304	0.6901
2.2911	0.5421	0.0737	7.3581	0	0.3972	0.687
2.5974	0.524	0.0816	6.4191	0	0.3635	0.6844
2.9036	0.5058	0.0898	5.633	0	0.3292	0.6823
3.2099	0.4876	0.0981	4.9696	0	0.2947	0.6806

다. 이는 성정체성 수용을 많이 경험할수록 반추에 따른 우울의 증가가 모든 영역에서 감소함을 나타낸다.

논 의

본 연구는 만 18세 이상 성인 시스젠더 동성애자, 양성애자 380명을 대상으로 성적지향

마이크로어그레션이 반추를 거쳐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사회적 지지와 성정체성 수용이 조절하는지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성적지향 마이크로어그레션과 우울의 관계에서 반추가 매개효과를 가지는지 확인하였다. 또한 사회적 지지, 성정체성 수용이 각각 조절된 매개효과를 가지는지 탐색하였다. 주요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주요변인 간의 상관분석을 시행한 결

과, 성적지향 마이크로어그레션은 반추와 정적 상관을 보였다. 이는 성소수자가 경험하는 차별이 반추적 정서조절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한 Hatzenbuchler (2009)의 주장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성적지향 마이크로어그레션과 우울은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박도담과 유성경 (2019)의 연구에서 검증된 바 있으며 해외 연구에서도 성적지향 마이크로어그레션과 우울이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인다는 결과가 확인되었다(Kaufman et al., 2017; Woodford et al., 2015). 본 연구에서 확인된 반추와 우울의 정적 상관은 많은 선행연구들에 의해 지지된 바와 같다(김은미, 2016; 방선희, 2017; 조민희, 홍혜영, 2017; 최중휘, 2021; 한유경, 2018). 사회적 지지는 반추, 우울과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으며 이호림 (2015)의 연구에서도 일관된 결과가 확인되었다.

둘째, 성적지향 마이크로어그레션과 우울의 관계에서 반추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반추는 성적지향 마이크로어그레션과 우울의 관계를 부분매개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성적지향 마이크로어그레션이 반추를 거쳐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매개모형에서 반추가 유의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소수자가 성적지향에 근거한 마이크로어그레션을 많이 경험할수록 반추를 하는 경향성이 높아져 우울감을 느낄 가능성도 함께 높아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도 소수자가 차별을 경험할 때 이를 반추하고 심리적 디스트레스를 겪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박사로 (2024)의 연구에서는 미묘한 성차별 경험이 분노반추와 관련이 높다는 결과가 밝혀진 바 있다. 미묘한 성차별을 경험했을 때 여성은 차별행동과 반대되는 상대의 온건한 태도로 인

해 심리적 혼란을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혼란은 성차별로 인한 불편감을 처리할 방법을 결정하지 못하게 하고 스트레스를 유발한다(Sue et al., 2009). 성소수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일상적인 상황에서 발생하는 마이크로어그레션은 차별로 인지되기 어렵기 때문에 성적지향 마이크로어그레션을 경험한 후에 어떠한 대처를 할지 판단하지 못하거나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할 수 있다. 또한 이를 상기고 곱씹는 과정에서 정서적 스트레스가 심화될 수 있다(Shelton & Delgado-Romero, 2013). 요약하면 마이크로어그레션 경험이 우울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마이크로어그레션이 반추에 영향을 미치고 다시 우울감을 높인다는 점에서 성소수자가 차별 경험을 반추할수록 더욱 깊은 우울감을 느낄 것을 예측해볼 수 있다.

셋째, 성적지향 마이크로어그레션이 반추를 거쳐 우울에 이르는 경로에서 사회적 지지와 성정체성 수용이 가지는 조절된 매개효과를 검증하고 비교하였다. 사회적 지지의 경우, .047의 효과크기로 조절된 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정체성 수용 또한 조절효과를 보이지만 효과크기가 .018로 사회적 지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았다. 이는 이호림 (2015)의 연구에서 사회적 낙인인식, 내재화된 동성애혐오, 반동성애 폭력경험과 우울 및 불안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가 조절효과를 가지지 않지만, 성정체성 수용은 완충효과를 보인다고 밝혀진 것과 상반된 내용이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가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기존 연구들을 보면, 성정체성 수용의 조절 효과에 대한 연구 결과가 혼재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거절에 대한 예상과 심리적 안녕

감의 관계에서 성적체성 수용의 조절효과를 측정한 이우람(2020)의 연구에서, 성적체성 수용은 조절효과를 보이지 않았다. 마이크로어그레션 경험이 반추를 거쳐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 성적체성 수용이 조절효과를 가지는지 확인한 해외 연구에서도 유의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Kaufman et al., 2017). 그러나 명시적인 거절과 정신건강 간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에서 성적체성 수용은 완충효과를 보였고(Doty et al., 2010; Hershberger & D'Augelli, 1995; Ramirez-Valles et al., 2005) 사회적 낙인 인식을 포함한 반동성애 경험과 우울의 관계에서도 조절효과를 보였다(이호림, 2015). Kaufman 외 (2017)는 이러한 상반된 결과에 대해 두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다고 제안한다.

첫 번째 이유로, 성적체성의 수용과 같은 지지적 요인의 효과는 성소수자가 어떤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고 어떤 욕구를 가지고 있는 상태인지에 따라 달라진다(Doty et al., 2010). 성소수자 개인은 커밍아웃 이후에도 계속해서 살아가고 개인의 스트레스 요인과 삶의 욕구는 끊임없이 변화한다. 예를 들어 커밍아웃을 하는 순간에는 주변 사람으로부터 성적체성 수용 받기를 원하고, 이후 파트너를 선택하고 만나는 과정에서는 또 다른 방식의 수용과 지지를 받기를 원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커밍아웃을 했을 때 타인에게 얼마나 받아들여지는지 만큼이나, 커밍아웃 외의 장면에서 경험하게 되는 사건과 이것이 초래하는 심리적 영향도 소수자의 정신적 건강에 중요하다. 또한 타인의 어떤 행동을 수용으로 지각하는지, 어떤 시점에서 지지받을 때 가장 효과적이라고 경험하는지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두 번째 이유로, 성적체성 수

용을 제공하는 타인과의 관계적 맥락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가 가변적일 수 있다(Kaufman et al., 2017). 수용의 경험을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수용을 제공하는 대상과의 친밀도, 성소수자 공동체 관여도 등 관계의 구조적, 맥락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관계의 질과 주관적 의미는 양적으로 환원하기 어렵기 때문에 선행연구와 상반된 결과가 도출된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표본수집 절차와 과정이 연구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연구 대상자들에게 성적체성을 공개적으로 묻지 않기 위해, 본 연구는 의도적 표본추출과 누적표집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온라인으로 진행되었다. 따라서 온라인 커뮤니티를 이용하지 않거나 자신의 성적지향을 아무에게도 드러내지 않은 성소수자의 경우 본 연구에 참여하지 못했을 확률이 높다. 이는 성소수자 공동체에 속해있거나 다수에게 자신의 성적지향을 드러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표본에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아가 성적지향을 공유하는 집단에 소속되어 있거나 주변 사람들에게 커밍아웃을 한 적이 있는 성소수자는, 타인의 지지를 경험할 때 그것인 일반적인 의미의 사회적 지지인지 성적지향에 대한 지지인지 구분하기 어렵다. 즉, 성적지향에 대한 지지가 이미 일반적인 사회적 지지에 포함되었을 확률이 높다는 것이다. 향후 연구에서 성소수자의 성적지향이 존중되고 지지받는 경험이 우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성소수자의 커밍아웃 경험과 사회적 지지의 출처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편, 사회적 지지와 성적체성 수용이 성적지향 마이크로어그레션과 우울의 관계에서 반추의 매개효과를 조절한다는 연구 결과는 각

각 의의가 있다. 우선 일반적인 의미의 사회적 지지는 개인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얻거나 얻을 것이라고 지각하는 대처자원을 뜻하며(박경희, 1995) 지지를 받는 개인 자신이 가치 있는 존재로 사회에 포함된다고 믿을 수 있도록 돕는다(Cobb, 1976). 많은 선행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가 스트레스의 부정적 영향을 완충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Krause, 1986; 김정엽, 이재모, 2009; 남향자, 이종한, 2005), 이는 성소수자가 경험하는 스트레스에서도 유의하다. 장미래와 송현주 (2021)의 연구에서 성소수자가 일반적인 사회적 지지를 높게 경험하는 경우, 성소수자 지인에게 드러내기 수준이 높을수록 심리적 안녕감이 증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지지 수준이 높은 성소수자는, 지지 수준이 낮은 경우에 비해 커밍아웃 경험이 많을수록 심리적 적응 수준이 높았고 우울을 덜 경험하였다. 박희정 (2023)의 연구에서도 성적지향 마이크로어그레션이 거부민감성을 매개하여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서 사회적 지지의 조절된 매개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다음으로 앞선 연구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성소수자의 정체성에 대한 지지와 타인의 수용은 성적지향 마이크로어그레션을 경험한 성소수자의 우울감을 조절하는 보호요인으로 작용한다(Doty et al., 2010; Hershberger & D'Augelli, 1995; Ramirez-Valles et al., 2005). 성정체성 수용은 사회적 낙인 인식을 포함한 반동성에 경험과 우울의 관계를 살펴본 국내 연구에서도 조절효과를 보였다(이호림, 2015). 종합하면, 사회적 지지와 성정체성 수용 모두 성소수자의 정신 건강에 주요한 보호요인으로 기능함을 알 수 있다.

넷째, Hatzenbuehler (2009)의 심리학적 매개

모형 중 일반적 심리 과정에 주목함으로써 기존의 선행연구에서 구체화되지 못했던 개인 내적 과정을 확인하였다. 또한 모형 내 변인의 관계에 대한 이해를 확장시키는 경험적 근거를 마련했다. 성적지향 마이크로어그레션과 우울, 또는 심리적 디스트레스와의 관계를 확인한 기존 연구들은 주로 Meyer (2003)의 이론을 토대로 사회적 관점에서 소수자 스트레스를 탐구하였으며, 심리학적 매개 모형에 근거한 국내 연구는 윤수진 (2019)의 연구가 유일했다. 그러나 심리학적 매개 모형의 관점에서 보면, 외부로부터 성적지향과 관련된 차별을 경험했을 때 이는 일반적 심리 과정, 집단 특정적 과정 두 가지 경로로 이어진다. 차별을 경험한 개인은 누적된 소수자 스트레스로 인해 거부에 민감해지고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려는 시도를 하게 된다. 기존의 소수자 스트레스 모형이 반영하는 부분은 이 과정까지이다. 본 연구는 심리학적 관점에서 차별경험을 살펴봄으로써 침습적으로 사건을 떠올리고 부적 정서 조절이 어려운 개인의 내적 과정에 초점을 맞추었다. 차별은 소수자의 거부민감성을 높이고 정체성 은폐 행동을 강화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인지적 왜곡과 대인관계 불편감과 같은 일반적인 정신건강 문제를 유발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이는 다시 부정적인 외부 사건과 스트레스를 경험할 확률을 높이고, 결과적으로 일반적 심리 과정과 집단 특정적 과정이 상호작용하며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 심리 과정 중 반추라는 대처반응에 초점을 맞추어 마이크로어그레션이 반추를 거쳐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검증하였다. 이러한 관점은 개인 내적 중재요인을 이해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외현적 사건이나 집단적 스트레스 아닌, 집단 내의 개개인이 겪는 구체적인 심리경험을 조명함으로써 성소수자가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개별적이고 능동적인 과정을 부각할 토대를 살펴볼 수 있기 때문이다. Hatzenbuehler (2009)는 개인의 구체적인 내적 과정에 초점을 맞출 때 개입할 지점이 분명해지는 이점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 예로, 윤수진 (2019)은 성적지향 마이크로어그레션이 다양한 스트레스 대처 전략을 거쳐 심리적 디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탐색한 뒤, 어떠한 대처가 성소수자의 정신건강에 효과적인지 실질적인 제언을 제시한 바 있다. 심리학적 매개모형을 통해 개인적인 수준에서 시도할 수 있는 정서적, 인지적, 행동적 대처를 모색하고 성소수자의 심리건강 증진을 도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연구 결과로부터 도출할 수 있는 상담 실무적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성적지향 마이크로어그레션이 성소수자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밝혔다. 상담 장면에서 성소수자 내담자를 만나는 경우, 상담자는 성적지향 마이크로어그레션 경험이 내담자의 어려움과 관련이 있는지 주의하여 심리상태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심리상담 기관에서 차별을 경험했다고 답한 성소수자가 23.1%, 상담 기관이 성소수자에게 비우호적이라고 인식한 경우가 22.7%인 점을 고려하면(정성조 외, 2022), 상담자 또한 마이크로어그레션을 행하지 않도록 유념해야 한다. 이를 위해 상담자는 성소수자 정체성 발달과정과 마이크로어그레션에 대한 지식을 지니고 있어야 하며 공감적이고 수평적인 태도로 상담에 임할 필요가 있다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2012). 나아가 상담자를 지도하고 교육을 제공하는 슈퍼바이저 또한 적절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

록 평소 자신의 신념, 가치관, 소수자에 대한 태도를 스스로 관찰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ALGBTIC LGBQQIA Competencies Taskforce, 2013). 국내 상담관련 주요 학회에서도 성소수자 상담연구회를 운영하고 있거나 추진 중에 있으며, 상담자를 위한 다문화상담 교과과정이 개발된 바 있다(김은하 외, 2019). 상담자가 행하는 마이크로어그레션을 측정하는 척도를 참고하여 상담자가 자기 자신을 점검하는 것 또한 한 방법이 될 수 있다(김혜민, 유금란, 2021).

둘째, 성소수자의 우울 경험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반추의 역할을 고려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선행연구에서 성소수자의 차별경험과 정신병리의 관련성은 다수 보고되었으나, 반추라는 인지적 변인이 차별과 구체적으로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는 살펴보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반추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여 성소수자가 우울을 호소할 때 반추적 사고를 고려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을 밝혔다. 이는 성소수자의 심리적 스트레스를 입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반추와 우울의 관계에서 마음챙김이나 자기자비와 같은 긍정심리학적 변인이 조절효과를 지닌다는 연구 결과가 다수 존재하나(서윤희, 2021; 유성경 외, 2020; 윤희원, 2020; 채현주, 2023) 성소수자가 경험하는 차별은 사회문화적 맥락을 포함하므로 동일하게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상담자는 성소수자 내담자가 성소수자 집단에 속해있는 동시에 인간 개인이기도 하다는 점을 염두하면서, 문제를 보편화하거나 개인화하지 않는 태도를 견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균형 있는 태도로 새로운 상담적 개입을 시도할 필요성이 강조된다. 세 번째 의의가 이와

관련이 있다.

셋째, 성적지향 마이크로어그레션으로 인한 심리적 문제에 사회적 지지와 성정체성 수용이 보호요인으로 기능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성소수자를 둘러싼 체계와 사람들이 성소수자에게 친밀하고 지지적일 때 차별경험이 반추를 거쳐 우울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낮아지며, 가까운 사람들이 성소수자의 성적지향을 알고 이에 대한 수용과 인정을 표할 때에도 우울이 완화된다. 이는 환경적, 개인적 요인 모두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친다는 Monore (2008)의 주장과 일치하며, 환경적 차원의 지지와 개인적 지지 모두 성소수자의 스트레스 완화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사회적 지지의 경우 성정체성 수용보다 큰 조절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밝혀졌으나, 사회적 지지를 제공하는 대상은 성소수자 개인과 관계하는 불특정 다수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개입하기 어렵다는 제한점이 있다. 그럼에도 상담자는 성소수자 내담자와 관계하는 한 명의 사람으로서 사회적 지지를 제공할 수 있고, 동시에 상담 장면에서 내담자가 지각하지 못한 사회적 지지를 발견하는 조력자로서 존재할 수 있다. 이때 최근 각광받고 있는 다문화 사회정의 상담의 태도를 활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다문화 사회정의 상담은 상담장면에서 다양성에 대해 다룰 때 그 바탕에 사회구조적 특권(privilege)과 억압(oppression)이 있다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고 강조하며(Sue et al., 1992) 주변화된 집단을 병리화하는 것에 문제를 제기한다. 또한 상담자-옹호자-학자(Counselor-Advocate-Scholar) 모델을 통해 상담자가 상담실 안에서 뿐만 아니라 상담실 밖에서도 구조적 불평등 해소에 힘쓸 것을 주장한다(강수정, 유금란, 2023). 상담자는 내담자의 개

인 내적 욕구와 갈등을 다루는 기존의 상담자 역할과 학자 역할에 더불어, 내담자가 처한 현실의 구조적 문제에도 초점을 맞추어 옹호자로서의 정체성을 지니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을 통해 성소수자의 경험을 사회적, 개인적인 관점에서 통합적으로 조망할 수 있을 때, 상담자는 성소수자 내담자가 일상 속에서 경험하는 지지를 포착하고 이를 강화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러한 예로, 김미진과 권경인 (2019)은 사회정의 옹호역량이 높을수록 내담자와 작업동맹을 형성하고 긍정적인 상담 성과를 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밝힌 바 있다.

나아가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12세에서 22세 사이에 자신의 성적지향을 인지하고 수용했다고 답한 성소수자가 380명 중 337명이었다. 이는 88.7%에 달하는 수치로, 많은 성소수자들이 청소년 시기에 자신의 성적지향을 인식하게 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에는 청소년 성소수자를 대상으로 한 공식적인 통계자료조차 없는 상황이다.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제 5조 3항은 '학생은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는 내용을 포함했다는 이유로 논란의 중심에 있다가, 2024년 4월에는 서울시의회에 의해 폐지되기도 하였다(안경준, 2024). 청소년 성소수자의 경우, 청소년이라는 사회적 지위로 인해 차별과 폭력에 저항하기 어렵다는 특성을 지닌다. 또한 가족, 학교 등의 체계에 둘러싸여 있어 사회적 지지와 성정체성 수용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강병철, 하경희, 2012). 향후 청소년 성소수자를 위한 옹호 활동을 통해 사회적 안전망과 지지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청소년들이 차별의 원인을 자신의 성적지향에 귀인하지 않도록 예

방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을 보완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첫째, 표본수집 과정에 한계가 있다. 연구의 사용된 표본이 성소수자 모집단을 대표한다고 보기 어렵다. 아직 국내에는 성소수자 인구에 대한 통계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추출된 표본을 통해 모집단의 특성을 추론할 수 없다는 한계점이 존재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성적지향과 같은 민감한 정보를 수집해야 하기 때문에 온라인 설문을 통한 의도적 표본추출과 누적표집을 활용하였다. 누적표집 과정에서 유사한 특성을 지닌 표본들이 모집될 확률이 높으며 연구자가 활용한 커뮤니티와 그에 속한 개인의 특징과 같은 외적 영향이 있을 수 있다. 또한 응답자 대부분의 연령이 10-20대에 속했기 때문에(91.00%) 다양한 연령대의 성소수자의 경험을 대표한다고 보기 어렵다. 둘째, 연구도구 구성에 한계가 있다. 성적체성 수용 척도는 Weinberg와 Williams (1974)이 개발하고 이호림 (2015)이 번역해 국내 연구에 활용하였고 이우람 (2020)이 연구에 사용된 바 있다. 그러나 타당도가 확보되지 못했으며 질문 또한 '거부하거나 수용했다고 느끼는 정도', '커밍아웃 하지 않은 경우 '예상되는 반응'에 관한 것이므로 측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명확하지 않다. 이는 번역된 척도를 사용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한계점으로, 한국 성소수자의 실제 경험을 반영하는 척도가 개발될 필요성이 있다. 셋째, Hatzenbuehler의 심리학적 매개 모형에서 주목한 일반적 심리 과정에 초점을 맞추었으나 집단 특정적 과정은 함께 탐색하지 못하였다. 향후에는 Meyer가 강조하는 사회구조적 요인과 Hatzenbuehler의 개인 내적 요인이 성소수자의 정신건강에 영

향을 미치는 경로를 동시에 살펴봄으로써, 상호작용 효과를 포함한 통합적인 관점의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넷째, 타인의 지지와 수용이 소수자 스트레스를 완충하는 기제를 다각적인 관점에서 탐색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지와 성적체성 수용이라는 변인을 통해 성소수자에게 의미 있는 지지가 무엇인지 밝히고자 했으나, 커밍아웃 여부, 사회적 지지의 출처, 성소수자 커뮤니티 경험 등에 따라 개인이 지각한 지지의 질과 내용은 상이할 가능성이 높다. 후속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을 좁히고 집단의 특성을 구체화하여 심층적인 수준에서 지지경험의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다섯째, 연구방식에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을 시스템더 동성애자와 양성애자로 제한하였다. 하지만 성별 정체성 또는 성적지향과 관련된 자기정의나 표현은 절대적이거나 불변하는 것이 아니며 연속적인 스펙트럼 속에서 이행될 수 있는 것이므로 이를 차원적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비록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성소수자 연구가 제한점이 많고 특정 집단에 집중되어 있으나 그 수나 내용이 이전보다 풍부해지고 있는 추세이다. 성소수자들의 삶의 경험을 반영하는 연구를 통해 성소수자의 정신건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상담 실제에 적용함으로써, 미래에는 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인 심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문헌

강병철 (2011). 사회적 낙인 인식이 성소수자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사회복지연구*, 42(2), 381-417.

- 강병철, 하경희 (2007). 청소년 동성애자의 정체체성 드러내기가 자살위험성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연구*, 35, 167-189.
- 강병철, 하경희 (2012). 청소년 성소수자의 긍정적 정체체성 형성과정에 관한 질적연구. *청소년학연구*, 19(2), 99-128.
- 강수정, 유금란 (2023). 수퍼바이지의 다문화 사회정의 상담 경험과 맥락에 대한 합리적 질적 연구. *다문화교육연구*, 16(3), 35-65.
- 곽재훈 (2021. 3. 17.). 안철수, 이번엔 ‘퀴어특구’ 논란... “원하는 분들 가서 즐기면 명소 되고...”. *프레시안*.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1031716344347049#0DKU>
- 김미진, 권경인 (2019). 상담자의 사회정의 옹호역량과 상담자 발달수준, 작업동맹 그리고 상담성과의 관계. *상담학연구*, 20(2), 67-87.
- 김수연 (2020). 여성 동성애자의 내면화된 이성애주의와 성차별이 심리적 디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성소수자 공동체 의식과 긍정적 정체성의 매개효과 [석사학위논문,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 김은경, 권정혜 (2004). 동성애 관련 스트레스가 남성 동성애자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한국임상심리학회지*, 23(4), 969-981.
- 김은미 (2016). 중년 여성의 외현적 자기애, 내현적 자기애와 우울의 관계: 반추 반응양식의 매개효과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은정, 오경자 (1994). 우울증상의 지속에 영향을 주는 인지 및 행동요인들.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13(1), 1-19.
- 김은하, 신윤정, 이지연 (2019). 상담전공대학원생을 위한 다문화 상담 교과 과정개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31(4), 1321-1364.
- 김인숙 (1994). 빈곤 여성의 사회적 환경요인과 심리적 디스트레스와의 관계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 김정엽, 이재모 (2008). 저소득 여성노인과 일반노인의 생활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노인복지학회*, 39, 399-420.
- 김혜민, 유금란 (2021). LGB 내담자가 경험하는 상담자의 마이크로어그레션에 관한 개념도 연구. *한국상담심리학회: 상담 및 심리치료*, 33(4), 1501-1526.
- 나윤재, 유성경 (2020). 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와 우울과의 관계에서 마음챙김, 탈중심화, 반추의 매개효과 검증. *청소년상담연구*, 28(2), 1-20.
- 남향자, 이종한 (2005). 노인의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에 대한 사회적 지지와 대처의 조절효과. *한국심리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158-159.
- 박경희 (1995). 사회적 지지가 사회복지사의 직무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 박도담, 유성경 (2019). 한국판 성적 지향 마이크로어그레션 척도(Korean version of the Sexual Orientation Microaggressions Scale: K-SOMS) 타당화.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31(3), 899-927.
- 박사로 (2024). 20, 30대 여성의 미묘한 성차별 경험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거부민감성과 분노만추의 이중매개효과 [석사학위

- 논문, 서울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사회계열].
- 박의주 (2012). 남성 동성애자의 내재화된 동성애혐오와 심리적 안녕감 및 드러내기 간의 관계: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석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대학원].
- 박지원 (1985). 사회적 지지 척도 개발을 위한 일 연구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 박희정 (2023). 성소수자에 대한 성적지향 마이크로어그레션 경험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거부민감성의 매개효과와 사회적 지지의 조절된 매개효과 [석사학위논문,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 방선희 (2017). 노인의 생활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 반추의 매개효과 [석사학위논문, 아주대학교].
- 서윤희 (2021). 대학생의 거부민감성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자기자비와 반추의 순차적 이중매개효과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 손현진, 정남운 (2023). 성적지향 마이크로어그레션이 성소수자의 심리적 디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내면화된 동성애혐오와 공동체 의식의 조절된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28(1), 93-115.
- 안경준 (2024. 4. 29.). “동성애 부추겨” vs “차별받지 않을 권리”... 학생인권조례 폐지 갈등의 이면. 세계일보.
<https://www.segye.com/newsView/20240429516332>
- 유성경, 최보운, 강유선 (2020). 반추 및 반성과 우울 및 심리적 안녕감과 관계에서 마음챙김의 매개 및 조절효과. 아시아교육연구, 21(2), 517-545.
- 윤수진 (2019). 성소수자(LGB)가 겪는 성적지향 마이크로어그레션이 심리적 디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스트레스 대처 전략을 통한 긍정적 정체성의 조절된 매개효과 [석사학위논문, 가톨릭대학교 상담심리대학원].
- 윤희원 (2020). 대학생의 자기초점주의와 우울의 관계에서 반추와 자기자비의 매개된 조절효과 [석사학위논문, 동신대학교 일반대학원].
- 이산, 오승택, 류소연, 전진용, 이진석, 이은, 박진영, 이상욱, 최원정 (2016). 한국판 역학연구 우울척도 개정판(K-CSED-R)의 표준화 연구. 정신신체의학, 24(1), 83-93.
- 이성원, 연구진 (2020). 성소수자(LGB)의 공동체 의식과 긍정적 정체성이 정신적 웰빙에 미치는 영향: 소수자스트레스 대처 전략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32(2), 639-666.
- 이우람 (2020). 남성 성소수자들의 마이크로어그레션 경험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지지와 적극적 대처에 의해 조절된 거절에 대한 예상의 매개효과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 이유진 (2021). 20~30대 여성의 미묘한 성차별 경험과 우울의 관계: 분노억제와 분노 반추의 이중매개효과 [석사학위논문,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 이호림 (2015). 소수자 스트레스가 한국 성소수자(LGB)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 장미래, 송현주 (2021). 여성 성소수자의 드러내기와 심리사회적 적응 간의 관계: 무조건적 자기수용과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한국심리치료학회지, 13(1), 25-49.

- 정규리 (2023. 5. 11.). 퀴어는 '오세훈 서울시'의 시민이 아닌가... 서울광장도 못 써. 한겨레21.
https://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3822.html
- 정성조, 김보미, 심기용, 한성진 (2022.5.17.). 2021 청년 성소수자 사회적 욕구 및 실태 조사 결과보고서. 다양성을 향한 지속 가능한 움직임 다움.
https://drive.google.com/drive/u/0/folders/1njLTKu1nXdyHeLmYfMCRBZiSiU00q_se
- 정세정, 김태완, 김문길, 정해식, 김기태, 주유선, 강예은, 최준영, 송아영, 김용환 (2020. 4.). 청년층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https://repository.kihasa.re.kr/bitstream/201002/36061/1/%EC%97%B0%EA%B5%AC%EB%B3%B4%EA%B3%A0%EC%84%9C%202020-03.pdf>
- 정한나, 김정민, 박 은 (2017). 대학생의 재학인 추구가 사회불안과 우울에 미치는 영향: 반추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인지행동치료*, 17(1), 105-122.
- 정혜민 (2023. 2. 21.). 법원, 동성커플 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정... “성적지향 차별 안 돼”. 한겨레.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80579.html
- 조민희, 홍혜영 (2017). 자기초점적 주의와 우울 간의 관계: 심리적 수용 및 반추의 매개효과. *통합치료연구*. 8(2), 35-60.
- 채현주 (2023). 초기 성인의 평가염려 완벽주의와 우울의 관계에서 반추의 매개효과와 마음챙김의 매개된 조절효과 [석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대학원].
- 최유주 (2024). 성적지향 마이크로어그레션과 성소수자(LGB)의 우울의 관계: 이성애불편감, 반추, 긍정적 정체성의 조절된 매개효과 [석사학위논문, 한신대학교 대학원].
- 최중휘 (2019). 평가염려 완벽주의와 우울의 관계: 반추와 마음챙김의 매개효과. *인문사회* 21, 12(4), 645-660.
- 한유경 (2018). 대학생의 성인애착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반추와 정서표현억제의 매개효과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허정은, 박 경 (2004). 동성애자의 동성애 관련 스트레스 및 우울과 자살사고 간의 관계. *심리치료: 다학제적 접근*. 4(1), 57-72.
- 홍성수, 김정혜, 노진석, 류민희, 이승현, 이주영, 조승미, 문유진, 설정은 (2016). *혐오표현 실태조사 및 규제방안 연구*. 국가인권위원회.
- 황단비 (2020). 소수자 스트레스와 정신적 웰빙의 관계에서 동성애자/ 양성애자 긍정적 정체성과 성소수자 공동체 의식의 조절된 매개효과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Abela, J. R., Aydin, C. M., & Auerbach, R. P. (2007). Responses to depression in children: Reconceptualizing the relation among response styles.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35, 913-927.
<https://doi.org/10.1007/s10802-007-9143-2>
- ALGBTIC LGBQQIA Competencies Taskforce, Harper, A., Finnerty, P., Martinez, M., Brace, A., Crethar, H. C., Loos, B., Harper, B., Graham, S., Singh, A., Kocet, M., Travis, L., Lambert, S., Burnes, T., Dickey, L. M., & Hammer, T. R. (2013). Association for

- Lesbian, Gay, Bisexual, and Transgender Issues in Counseling competencies for counseling with lesbian, gay, bisexual, queer, questioning, intersex, and ally individuals. *Journal of LGBT Issues in Counseling*, 7(1), 2-43.
<https://doi.org/10.1080/15538605.2013.755444>
-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2012). Guidelines for psychotherapy practice with lesbian, gay, and bisexual clients. *American Psychologist*, 67(1), 10-42.
- Bergart, A. M. (2004). Group work as an antidote to the isolation of bearing an invisible stigma. *Social Work with Groups*, 26(3), 33-43.
https://doi.org/10.1300/J009v26n03_05
- Cobb, S. (1976). Social support as a moderator of life stress. *Psychosomatic medicine*, 38(5), 300-314.
<https://doi.org/10.1097/00006842-197609000-00003>
- Conley, T. D., Calhoun, C., Evett, S. R., & Devine, P. G. (2002). Mistakes that heterosexual people make when trying to appear non-prejudiced: The view from LGB people. *Journal of Homosexuality*, 42(2), 21-43.
https://doi.org/10.1300/J082v42n02_02
- Doty, N. D., Willoughby, B. L., Lindahl, K. M., & Malik, N. M. (2010). Sexuality related social support among lesbian, gay, and bisexual youth.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39(10), 1134-1147.
<https://doi.org/10.1007/s10964-010-9566-x>
- Gonzalez, K. A., Abreu, R. L., Arora, S., Lockett, G. M., & Sostre, J. (2021). "Previous resilience has taught me that I can survive anything" LGBTQ resilience during the COVID-19 pandemic. *Psychology of Sexual Orientation and Gender Diversity*, 8(2), 133-144.
<https://doi.org/10.1037/sgd0000501>
- Hatzenbuehler, M. L. (2009). How does sexual minority stigma "get under the skin"? A psychological mediation framework. *Psychological Bulletin*, 135(5), 707.
<https://doi.org/10.1037/a0016441>
- Hatzenbuehler, M. L., McLaughlin, K. A., & Nolen-Hoeksema, S. (2008). Emotion regulation and the development of internalizing symptoms in a longitudinal study of LGB adolescents and their heterosexual peers.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49(12), 1270-1278.
<https://doi.org/10.1111/j.1469-7610.2008.01924.x>
- Hayes, A. F. (2012). PROCESS: A versatile computational tool for observed variable mediation, moderation, and conditional process modeling.
<http://www.afhayes.com/public/process2012.pdf>
- Hayes, A. F. (2015). An index and test of linear moderated mediation. *Multivariate Behavioral Research*, 50, 1-22.
<https://doi.org/10.1080/00273171.2014.962683>
- Herek, G. M., Cogan, J. C., Gillis, J. R., & Glunt, E. K. (1998). Correlates of internalized homophobia in a community sample of lesbians and gay men. *Journal-Gay and Lesbian Medical Association*, 2, 17-26.
- Hershberger, S. L., & D'Augelli, A. R. (1995). The impact of victimization on the mental health and suicidality of lesbian, gay, and bisexual youths. *Developmental Psychology*, 31(1), 65-74.
<https://doi.org/10.1037/0012-1649.31.1.65>

- Huffziger, S., Reinhard, I., & Kuehner, C. (2009). A longitudinal study of rumination and distraction in formerly depressed inpatients and community control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18*(4), 746-756. <https://doi.org/10.1037/a0016946>
- Kalev, A., Dobbin, F., & Kelly, E. (2006). Best practices or best guesses? Assessing the efficacy of corporate affirmative action and diversity policie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71*(4), 589-617.
- Kaufman, T. M., Baams, L., & Dubas, J. S. (2017). Microaggressions and depressive symptoms in sexual minority youth: The roles of rumination and social support. *Psychology of Sexual Orientation and Gender Diversity, 4*(2), 184-192. <https://doi.org/10.1037/sgd0000219>
<https://doi.org/10.1177/000312240607100404>
- Krause, N. (1986). Social Support, Stress, and Well-being Among Older Adults. *Journal of Gerontology, 41*(4), 512-519. <https://doi.org/10.1093/geronj/41.4.512>
- Lee, E. A., Ashai, S., Teran, M., & Shin, R. Q. (2023). Intersectional microaggressions, mental health outcomes, and the role of social support among Black LGB adult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70*(5), 464 - 476. <https://doi.org/10.1037/cou0000684>
- Lyubomirsky, S., Tucker, K. L., Caldwell, N. D., & Berg, K. (1999). Why ruminators are poor problem solvers: Clues from the phenomenology of dysphoric rumin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7*(5), 1041-1060. <https://doi.org/10.1037/0022-3514.77.5.1041>
- Matthews, A. K., Hughes, T. L., Johnson, T., Razzano, L. A., & Cassidy, R. (2002). Prediction of depressive distress in a community sample of women: The role of sexual orientation.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92*(7), 1131-1139.
- McIntosh, P. (2003). White privilege: Unpacking the invisible knapsack. In S. Plous (Ed.), *Understanding prejudice and discrimination* (pp. 191-196). New York: McGraw-Hill.
- Meyer, I. H. (2003). Prejudice, social stress, and mental health in lesbian, gay, and bisexual populations: Conceptual issues and research evidence. *Psychological Bulletin, 129*(5), 674-697. <https://doi.org/10.1037/0033-2909.129.5.674>
- Monroe, S. M. (2008). Modern approaches to conceptualizing and measuring human life stress. *Annual Review of Clinical Psychology, 4*(1), 33-52. <https://doi.org/10.1146/annurev.clinpsy.4.022007.141207>
- Morrison, M. A., & Morrison, T. G. (2003).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scale measuring modern prejudice toward gay men and lesbian women. *Journal of Homosexuality, 43*(2), 15-37. https://doi.org/10.1300/J082v43n02_02
- Nadal, K. L. (2013). *That's so gay! Microaggressions and the lesbian, gay, bisexual, and transgender community*.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https://doi.org/10.1037/14093-000>
- Nolen-Hoeksema, S. (1991). Responses to depression and their effects on the duration of depressive episode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0*(4), 569-582.

- <https://doi.org/10.1037/0021-843X.100.4.569>
Pierce, C. (1970). Offensive mechanisms. In Barbour, F. B., & Barbour, F. B. (Eds.), *The Black Seventies* (pp. 265-282). Boston: P. Sargent.
- Plöderl, M., & Fartacek, R. (2005). Suicidality and associated risk factors among lesbian, gay, and bisexual compared to heterosexual Austrian adults. *Suicide and Life-Threatening Behavior, 35*(6), 661-670.
<https://doi.org/10.1521/suli.2005.35.6.661>
- Preacher, K. J., Rucker, D. D., & Hayes, A. F. (2007). Addressing moderated mediation hypotheses: Theory, methods, and prescriptions. *Multivariate behavioral research, 42*(1), 185-227.
<https://doi.org/10.1080/00273170701341316>
- Radloff, L. S. (1977). The CES-D scale: A self-report depression scale for research in the general population. *Applied psychological measurement, 1*(3), 385-401.
<https://doi.org/10.1177/014662167700100306>
- Ramirez-Valles, J., Fergus, S., Reisen, C., Poppen, P., & Zea, M. (2005). Confronting stigma: Community involvement and psychological well-being among HIV-positive Latino gay men. *Hispanic Journal of Behavioral Sciences, 27*(1), 101 - 119.
<https://doi.org/10.1177/0739986304270232>
- Remafedi, G., Farrow, J. A., & Deisher, R. W. (1991). Risk factors for attempted suicide in gay and bisexual youth. *Pediatrics, 87*(6), 869-875. <https://doi.org/10.1542/peds.87.6.869>
- Ryan, C., & Futterman, D. (1997). Lesbian and gay youth: care and counseling. *Adolescent Medicine (Philadelphia, Pa.), 8*(2), 207-374.
- Sarin, S., Abela, J., & Auerbach, R. (2005). The response theory of deression: A test of specificity and casual mediation. *Cognition and Emotion, 19*, 751-761.
<https://doi.org/10.1080/02699930441000463>
- Sarno, E. L., Newcomb, M. E., & Mustanski, B. (2020). Rumination longitudinally mediates the association of minority stress and depression in sexual and gender minority individual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29*(4), 355-363.
<https://doi.org/10.1037/abn0000508>
- Shelton, K., & Delgado-Romero, E. A. (2013). Sexual orientation microaggressions: The experience of lesbian, gay, bisexual, and queer clients in psychotherapy. *Psychology of Sexual Orientation and Gender Diversity, 1*(S), 59-70.
<https://doi.org/10.1037/2329-0382.1.S.59>
- Sue, D. W. (2010a). *Microaggressions and Marginality: Manifestation, Dynamics, and Impact*. Hoboken, NJ: John Wiley & Sons.
- Sue, D. W. (2010b). *Microaggressions in Everyday Life: Race, Gender, and Sexual Orientation*. Hoboken, NJ: John Wiley & Sons.
- Sue, D. W., & Arredondo, P., & McDavis, R. (1992). Multicultural counseling competencies and standards: A call to the profession.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70*(4), 477-486.
<https://doi.org/10.1002/j.1556-6676.1992.tb01642.x>
- Sue, D. W., Bucceri, J., Lin, A. I., Nadal, K. L., & Torino, G. C. (2007). Racial microaggressions and the Asian American experience. *Cultural Diversity and Ethnic Minority Psychology, 13*(1), 72-81.

- Sue, D. W., Capodilupo, C. M., Torino, G. C., Bucceri, J. M., Holder, A., Nadal, K. L., & Esquilin, M. (2007). Racial microaggressions in everyday life: Implications for clinical practice. *American Psychologist, 62*(4), 271-286.
<https://doi.org/10.1037/0003-066X.62.4.271>
- Sue, S., Zane, N., Nagayama Hall, G. C., & Berger, L. K. (2009). The case for cultural competency in psychotherapeutic interventions. *Annual Review of Psychology, 60*(1), 525-548.
<https://doi.org/10.1146/annurev.psych.60.1.10707.163651>
- Timmins, L., Rimes, K. A., & Rahman, Q. (2020). Minority Stressors, Rumination, and Psychological Distress in Lesbian, Gay, and Bisexual Individuals. *Archives of Sexual Behavior, 49*(2), 661-680.
<https://doi.org/10.1007/s10508-019-01502-2>
- Weinberg, M. S., & Williams, C. J. (1974). Male homosexuals: Their problems and adaptations. *Psychiatric Annals; Thorofare, 4*(4), 109-110.
- West, S. G., Finch, J. F., & Curran, P. J. (1995). Structural equation models with nonnormal variables: Problems and remedies. In R. H. Hoyle (E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Concepts, issues, and applications* (pp. 56 - 75). Sage Publications, Inc.
- Wichstrom, L., & Hegna, K. (2003). Sexual orientation and suicide attempt: A longitudinal sample of the general Norwegian sample.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12*(1), 144-151.
<https://doi.org/10.1037/0021-843X.112.1.144>
- Woodford, M. R., Chonody, J. M., Kulick, A., Brennan, D. J., & Renn, K. (2015). The LGBQ microaggressions on campus scale: A scale development and validation study. *Journal of Homosexuality, 62*(12), 1660-1687.
<https://doi.org/10.1080/00918369.2015.1078205>
- 논문 투고일 : 2024. 05. 24
1 차 심사일 : 2024. 08. 05
게재 확정일 : 2024. 08. 13

**The Effect of Microaggression against Sexual Orientation
on LGB's Depression:
The Moderating Effects of Social Support and Acceptance of
Sexual Orientation on the Mediating Effects of Rumination**

Hyunjung Lee

Kumlan Yu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This study examines the moderation effect of social support and acceptance of sexual orientation on the mediation effect of through ruminat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microaggression against sexual orientation and LGB's depression. To this end, an online survey was conducted among cisgender homosexuals and bisexuals aged 18 years and older, and 380 participants were ultimately selected for the study. The result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he correlations of all variables were significant except for the relationship between rumination and acceptance of sexual orientation. Second, rumination partially mediated the pathway of microaggression against sexual orientation predicting LGB's depression. Third, the moderated mediation effect of social support and acceptance of sexual orientat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microaggression, rumination, and depression was found. The effect size of social support was found to be larger than that of acceptance of sexual orientation. Based on these findings, the implications of the study, possible interventions in counseling, and suggestions for further research were discussed.

Key words : microaggression against sexual orientation, depression, rumination, social support, acceptance of sexual orientation